

고향이 이야기

A Childhood in the Countryside

조재영

(경민대학 만화예술과 교수)

< 초록 >

연구 주제는 우리 모두가 성장하면서 느끼고 경험했을, 그러나 고단한 일상 속에 파묻혀 있고 지냈을, 유년시절의 이야기를 조그마한 시골지역을 배경으로 잔잔하게 그려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도시에서 이사온 한 초등학생에게 시골마을은 제대로 포장된 도로도, 이층집도 없는 곳이었지만 주변에는 친구들과 뛰어 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이때의 느낌과 에피소드가 여러 장면 속에 분부터 겨울까지 일년 사계절을 배경으로 담겨져 있다. 이런 의도 속에서 각 그림의 주제와 등장인물간의 조화를 맞추며, 각각의 그림은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서로 연관된 고향이라는 주제의 하나의 이야기이다.

독특한 표현세계의 추구를 위한 기법연구로 한국화 기법을 만화와 접목을 통해 동양적인 정서와 회화적인 표현이 접목된 만화를 연구함으로써, 대중성과 예술성이 보완된 작품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과정 속에서 본인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시골 어린이들의 생생한 감정과 동작의 움직임, 각가지 얼굴표정과 제스처를 만화적인 기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그림의 배경이 되는 우리의 자연과 산하를 동양화 기법으로 특징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 장면마다 그에맞는 이야기를 나레이션 형식으로 삽입하여 평면 작품으로 제작하였고, 또한 그 작품을 CD-ROM 속에 담음으로써 영상화된 화면으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번 작품 제작을 통하여 본인의 의식 깊은 곳에 영향을 주고, 낳고 키워준 고향의 이야기들을 표현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도시생활에 찌들어 있는 현대 대중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I. 작품제작 의도와 배경

시골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내게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다. 내 마음의 고향이며, 일상을 살아가며 지쳐있을 때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추억이며, 그림을 그리는 내게 그 시절은 감수성의 보물창고이다. 이것은 나만의 추억이 아닐 것이며, 바쁘게 힘들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추억이며 그리운 고향이며 동심일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과 고향의 따뜻함과 여유로움을 함께 공감하기를 소망한다.

II. 작품의 전개방식(본문)

1. 이론적 측면

가. 작품의 주제와 배경이 되는 고향

“어떠한 대상에 대해 선택적 태도를 취함에 있어 주체가 되는 개인은 풍토로부터 학습되어진 의식의 지배를 받게 되며, 여기서 풍토는 이 무의식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대상이 된다. 풍토는 어떤 내용을 우리의 무의식 속에 축적시키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 의식세계의 수면으로 우리의 조형의식을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에, 인간이 각자의 독특한 지각 방식에 의해 어떤 사물의 의미를 받아들 이는데 있어, 그 지각 방식에 바탕이 된다.” 본인이 표현한 고향이야기 시리즈도 다분히 풍토에 의해 학습된 조형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충북 충주의 근방의 시골에서 어린 시절 성장하였다. 남한강변에 나지막한 뒷산이 있는 전형적인 시골 농촌마을이었다. 친구들과 떼지어 오리나 되는 산 고개 길을 걸어서 초등학교를 다니며, 하교 길에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칩도 캐고 뽕나무의 열매인 다래도 따먹으며 들로 산으로 쏘다녔다. 여름이면 남한강변에서 팬티만 입고 물장구도 치고, 다슬기를 잡고 놀기도 하고, 겨울이 되면 썰매도 타고 얼음 배도 타고 놀았다. 시골의 온 자연이 우리들의 정겨운 놀이터였다. 방학을 맞아 충주에 있는 외갓집을 가려면 하루에 두 세 번밖에 다니지 않는 버스를 타고 남한강변으로 좁게 나 있는 비포장 도로를 아슬아슬 하게 곡예운전하듯 달리곤 하였다. 온통 자연에 둘러 싸여 있는 시골 마을에서 자연의 사계절의 변화는 내가 느낄 수 있었던 환경의 대부분이었고, 어린 나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잡아 나의 작품이 되었다. 유년시절 고향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었고, 시골 고향의 자연이 작품의 배경으로 표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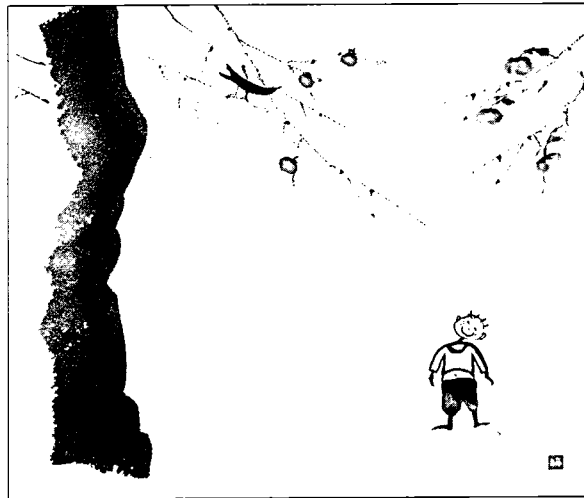
2. 제작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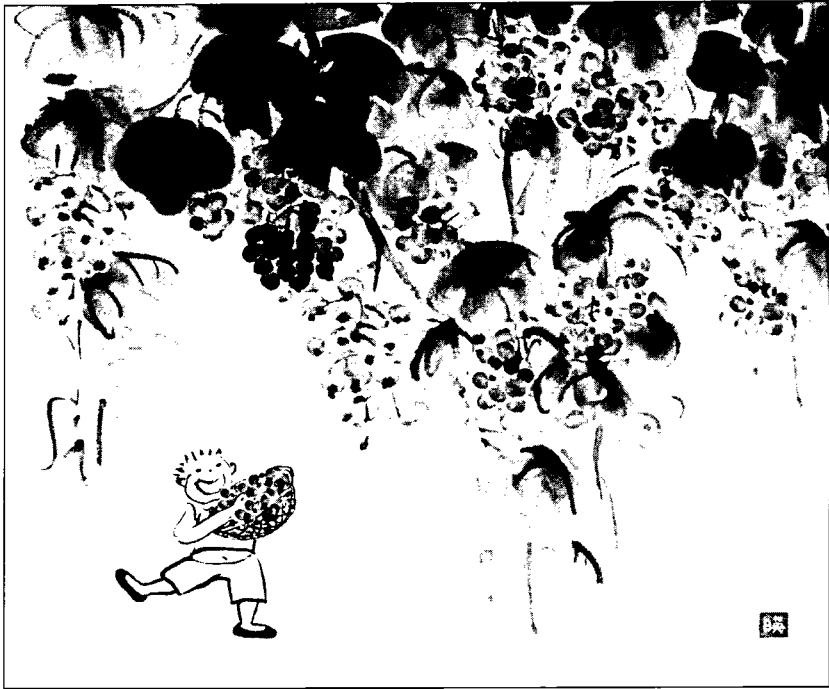
가. 한국화 기법을 접목한 만화제작

본 연구자는 만화에 대중성에 예술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의 한 방법으로 순수회화의 한국화 기법의 접목을 만화에 시도하였다. 한국화 기법은 동양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도 친근감이 느껴 지는 기법이며, 현대 기계문명의 발달로 물량주의가 팽배해 있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대중들에게 있어서 여백과 번짐이 많고 정신적이고 감성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한국화 기법은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여유를 줄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 유학 중 서구인들의 동양화 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감을 접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만화에 동양화의 한 기법인 우리 전통의 한국화 접목을 통한 새로운 만화제작기법은 서양의 물량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지쳐있는 서구인들에게도 서양 만화와 차별화 되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화에 있어 한국화의 접목이라는 독특한 표현방법으로 예술성이 보완된 만화, 세계무대에서 한국적인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는

만화의 한 표현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작기법에 있어 한국화와 만화의 접목을 시도하였고 이를 기본기법으로 하여 한국화의 힘찬 붓의 터치와 번짐과 함께 일반 펜의 날카롭고 기계적인 느낌을 보완하고자 대나무 펜을 사용하여 따뜻하고 둔탁한 느낌의 회화적인 선으로 인물들을 표현하였다. 우리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친근한 내용을 소재로 한국화 기법을 통한 배경 표현과 만화적인 인물 표현으로, 대중과 친밀하고 예술성이 보완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3. 작품사진





III. 향후방향(결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달프게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주제로 고향을 선택하였고, 기법 연구로 순수회화인 동양화와 대중 매체인 만화를 접목하는 기법으로 대중성과 회화적인 예술성의 보완을 시도하였다.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고 기법으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만화인지, 동양화인지, 일러스트레이션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탈 장르 시대에 장르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굳이 구분하라면 만화 동양화라고 분류하고 싶다. 앞으로 부단한 노력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좀더 성숙하고 독특한 작품세계를 이루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강선옥, 「평면적 조형성에 의한 표현 방법의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창지사, 1991.